

# 경제적 자유와 한국경제의 위상

Economic Freedom and the Phase of Korean Economy

朴 東 雲\*

Park, Dong Un

## 目 次

|                          |                          |
|--------------------------|--------------------------|
| I. 서 론                   | 1. 한국의 경제적 자유 지수         |
| II. 경제적 자유의 본질           | 2. 한국과 선진국과의 비교          |
| III. 경제적 자유의 지수화 내용      | V. 결 론                   |
| 1. 경제적 자유의 지수화 배경        | 1. 요 약                   |
| 2. 경제적 자유의 지수화           | 2. 시사점 : IMF 체제하의 한국의 경제 |
| 3. 경제적 자유와 소득 및 성장 간의 관계 | 적 자유 평가                  |
| IV. 경제적 자유와 한국경제의 위상     |                          |

## I. 서 론

1995년 1월부터 WTO가 출범함으로써 세계는 바야흐로 글로벌시대를 향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다. '경쟁' 은 이제 세계 각처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은 곧 '시장경제의 활성화' 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해 가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시장경제의 활성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시장경제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최근에 들어와 국가의 위상을 평가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로 도입되고 있다. 국가경쟁력 지수, 정보화 지수, 국부 지수 등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여기에는, 또 최근에는 경제적 자유 지수까지 도입되고 있어서 국가 위상을 평가하는

\* 본 研究센터 常任研究員, 商經大學 經濟貿易學部 教授(經濟學博士)

방법들은 흥미를 가증시켜 주고 있다.

시장경제의 활성화 면에서 한국경제의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 1960년대 이후 오래동안 관 주도 경제정책에 힘입어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룩해 온 한국은 1995년 1인당 GNP 1만달러 시대를 열었고, 1996년에는 OECD에 가입하여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도 했다. 특히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한국은 개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1995년 세계 115개 국가들 중 경제적 자유 등급이 일본과 같은 18위를 차지하여, 경제적 자유 면에서 국가의 위상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1990년대 초반 이후로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 투자여건의 악화, 김영삼정부의 정책 실패 등으로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IMF 구제금융 없이는 더 이상 희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1997년 12월 3일 드디어 IMF 관리에 예속되고 말았다. IMF 관리는 2002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 글의 주목적은, 한국에서 시장경제의 운용과 관련된 경제적 자유는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이 글은 본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경제적 자유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논의한 후 III장에서는 경제적 자유의 지수화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 IV장에서는 한국의 경제적 자유와 한국경제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고 V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결론의 시사점에서는 IMF 체제하에서 한국의 경제적 자유는 향상될 수 있을 것인가를 전망할 것이다.

## II. 경제적 자유의 본질

경제적 자유는 시장경제의 핵심이 된다. 이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경제적 자유의 본질을 논의할 것이다.

경제적 자유의 본질을 논의한 학자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몇몇 경제학자들과<sup>1)</sup> Milton Friedman의 사상을 통해서 이는 파악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J. S. Mill은 좋은 사회란 개인이 상품의 구입과 자원의 처분에서 폭넓은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사회라고 말하면서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A. Smith는 경제적 자유는 개인으로 하여금 특화(特化)의 기회를 높일 수 있고 시장의 출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F. A.

1) Eatwell, J., Milgate, M. & Newman, P., *The Invisible Hand*, W. W. Norton, 1989, pp. 88-93.

Hayek는 경제적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전체주의는 인간을 노예가 되는 길로 인도하게 된다고 비판하면서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자유가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의 필수조건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197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M. Friedman은 어느 학자보다도 경제적 자유에 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sup>2)</sup>. 그는 경제적 자유의 본질은 소득사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소유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 등 세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① 소득사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freedom to choose how to use our income)

경제적 자유의 첫 번째 본질은 개인이 자신의 소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고 프리드만은 쓰고 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상품 구입에 얼마나 지출할 것인가, 어떤 제품을 살 것인가, 남을 위해서 기부금으로 얼마나 내놓을 것인가 등이 그러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득의 사용에서 만일 어떤 개인이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는다면 그는 완벽한 선택의 자유를 가진 것이라고 프리드만은 쓰고 있다.

그러면 개인이 자신의 소득 사용에서 완벽한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다. 현실적으로 개인의 선택의 자유는 국가의 존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구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자본주의에서 거의 모든 개인은 경제활동과정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 대가로 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은 자신의 소득의 사용에서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된다. 규제의 정도는 평균적으로 국민소득 가운데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될 수 있다. 자유주의자들이 조세철폐를 주장하는 이유는 조세 부과로 인해서 개인의 자유가 구속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② 소유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freedom to use the resources we possess)

소유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자신의 뜻에 따라 직업선택이나 기업경영이나 자산증식 등에 사용하는 자유라고 프리드만은 쓰고 있다. 한 개인이 자신의 소유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그것은 한 개인이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바탕으로 철학교수가 될 것인가, 음악가가 될 것인가, 자신의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자동차회사 사장이 될 것인가, 부동산회사 사장이 될 것인가, 또는 자산증식을 위해서 부동산시장에 투자할 것인가, 주식시장에 투자할 것인가 등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만일 한 개인이 외부로부터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

2) Friedman, M. and Friedman, R., *Free to Choose*, Harcourt Brace Janovich, 1980, pp. 65-67.

는다면 그는 완벽한 선택의 자유를 가진 것이라고 프리드만은 쓰고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자원사용의 자유가 비교적 잘 보장되어 있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예로는,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은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기업경영의 자유를 갖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렇듯 자원사용의 자유가 주어져 있는 자본주의에서는 경제주체자들이 자신의 효용이나 인센티브에 이끌려 경제활동을 해 나가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는 사회주의에 비해서 높은 경제적 효율성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주체자들이 이윤추구에만 이끌려 경제활동을 해 나가다 보면 자본주의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경제적 불평등의 예로는, 기업의 경우에는 경제력 집중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제력 격차, 개인의 경우에는 분배격차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 정부규제는 불가피하게 될 것이므로 개인의 자원사용의 자유는 구속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③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freedom to own property)

자산 소유의 자유란 자산의 사적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경제적 자유에서 핵심이 된다고 프리드만은 쓰고 있다. 체제분류에서 자산소유 형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체제는 자산이 사적으로 소유되면 자본주의 또는 시장경제, 공적으로 소유되면 사회주의, 그리고 혼합적으로 소유되면 혼합체제라고 불리운다. 경제체제와 관련해서 자산이 사적으로 소유되어야만 개인은 진정한 의미의 경제적 자유를 갖게 되고, 따라서 경제적 자유는 시장경제 성립의 기본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산은 완벽하게 사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만일 자산이 완벽하게 사적으로 소유된다면 그 결과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국가들은 혼합경제체제를 채택함으로써 자산의 사적소유를 어느 정도 규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실패를 방지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에 관한 역사적인 예는, 200여년 전 자유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출발하여 오늘날 세계에서 대표적인 시장경제 국가로 발전해 있는 미국, 시장경제만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효율성을 도외시함으로써 붕괴해버리고만 구사회주의 국가들, 그리고 1997년에 경제대개혁을 추진하여 사유권의 인정을 바탕으로 시장경제를 본격적으로 활성화시켜오고 있는 중국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 III. 경제적 자유의 지수화 내용

## 경제적 자유와 한국경제의 위상

경제적 자유의 본질과 중요성은 경제적 자유의 지수화를 통해서 구체화되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경제적 자유의 지수화의 배경, 측정, 그리고 의미를 논의할 것이다.

### 1. 경제적 자유의 지수화 배경

경제적 자유의 지수화는 앞에서 언급한 몇 가지의 국가위상 평가방법과는 달리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경제적 자유의 지수화 배경을 살펴보자.

경제적 자유의 지수화를 위해서 전문가 중심의 연구가 1984년부터 1977년까지 15여년 동안 계속되었다. 이에 관해서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 M. Walker소장은 그 배경을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다<sup>3)</sup>.

경제적 자유의 지수화의 최초의 결실은 J. Gwartney, R. Lawson, W. Block의 공동 집필로 1996년 1월 『세계의 경제적 자유 1975-1995』(*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1975-1995*)라는 책이 출간됨으로써 빛을 보게 되었다. 그동안 프레이저 연구소의 경제적 자유의 지수화 과정에 기여한 사람은 모두 61명에 이른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서 Friedman 부부 등 많은 학자들은 물론 Fraser연구소를 비롯하여 세계 11개 연구소의 참여도 있었다.

이 책이 출간된 후 M. Friedman과 M. Walkers는 회의를 주재하여 전세계 경제적 자유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 네트워크 창설에는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한국의 자유기업센터(CFE)를 비롯하여 미국의 CATO연구소, 캐나다의 Fraser연구소, 영국의 IEA연구소 등 세계 47개 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다.<sup>4)</sup> J. Gwartney와 R. Lawson은 이들 연구소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자료의 보완작업을 거친 후 1997년에는 287쪽에 이르는 『세계의 경제적 자유, 1997년 연차보고서』(*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1997 Annual Report*)라는 이름으로 책을 출간하여 1975-95년 간의 세계 100여개가 넘는 국가들의 경제적 자유 지수를 발표했다. 이 연차보고서는 앞으로 새로운 자료를 보완하여 해마다 계속해서 출간될 예정이다.

이 두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제적 자유 지수를 측정하는 목적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Walker, M. A.,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Economic Freedom Index," in J. Gwartney and R. Lawson,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1997, Annual Report*, Fraser Institute, 1997, pp. 1-10.

4)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바 있는 경제적 자유 지수는 용어만 같을 뿐 그 수준과 내용은 프레이저 연구소의 지수와 결코 비교될 수 없을 것이다.

## 2. 경제적 자유의 지수화

여기에서는 경제적 자유의 지수화와 관련하여 측정대상, 측정방법, 그리고 측정결과를 논의할 것이다.

### (1) 측정대상

경제적 자유의 지수화에서는 측정대상이 4개 분야와 17개 항목으로 나누어져있다. 4개 분야는 ①통화와 인플레이션 ②정부운용과 경제구조 ③정부의 조세제도 및 기타 ④국제무역 등이다.

4개 분야는 <표 1>에서 처럼 다시 17개 항목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이들 항목들은 한 국가의 제도와 정책들이 개인들의 시간과 자원의 이용, 상품의 소비, 투자대안의 모색과 같은 경제적 선택과 어느 정도로 일치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택된 것들이다.

#### ①통화와 인플레이션(가치저장과 교환수단으로서의 화폐 보호)

지나친 통화증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 이라는 M. Friedman의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이다. 통화증가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근로소득자는 실질소득 감소로 소득처분의 자유가 구속될 것이다. 이로 인해 노조가 실질임금 감소를 막기 위하여 지나친 명목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시민의 경제적 자유는 계속해서 구속될 것이다.

화폐와 인플레이션 간의 이와 같은 관계를 고려하여 잠재적 실질 GDP 증가율에 비해서 통화증가율이 낮고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국가는 높은 점수를 받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낮은 점수를 받는다.

통화와 인플레이션 부문에서는 시민이 국내외에서 외국은행계좌와 외환을 얼마나 자유롭게 보유할 수 있는가도 평가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통화와 인플레이션의 가중치는 전체 100에 대해 15.7이다.

#### ②정부운용과 규제(무엇이 생산되고 소비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유)

정부는 정부소비, 정부생산, 그리고 각종규제를 통해서 소비와 생산 면에서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구속한다. 이와 관련하여, 총소비 가운데서 정부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공기업을 통한 정부생산의 비중, 가격통제, 시민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규제 등이 평가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의 구속은 사실상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 부문의 비중과 정부규제 등의 가중치는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전체 100에 대해 34.6으로서 기대대로 높은 편이다.

#### ③취득과 차별적 조세(벌어들인 것을 지키는 자유)

## 경제적 자유와 한국경제의 위상

정부는 조세, 특히 차별적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의 소득처분의 자유를 구속한다. 정부는 또 복지정책 차원에서 이전과 보조금지출을 통해서도 개인의 소득처분의 자유를 구속한다.

여기에는 강제성을 띤 징집제도의 적용 여부도 경제적 자유의 평가대상에 포함되고 있어서 흥미롭다.

GDP에 대한 이전과 보조금 비중이 높고, 최고 한계세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낮은 점수를 받는다. 이 부문의 가중치는 전체 100에 대해 27.2이다.

### ④국제교환에서의 규제(외국인과의 교환의 자유)

이는 외국인과의 교환의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 외국인과의 교환이 얼마나 자유로운가가 핵심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국제무역에서 조세는 얼마나 많은가, 공정한환률과 암시장환률과의 차이는 얼마나 큰가, 무역규모는 얼마나 큰가, 외국인과의 자본거래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등이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 부문의 가중치는 100에 대해 22.5이다.

### (2) 측정방법

4개 분야에 걸친 17개 항목의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에 이른다. 이들 점수는 각 항목에 주어진 가중치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최저 0점에서 최고 10점으로 평가되었다.

가중치의 결정은 경제적 자유의 지수화에서 가장 어려웠던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sup>5)</sup> 항목의 가중치는 지수 추정회의에 참여한 학자들에게 설문지를 주어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정해진 것이다.

### (3) 측정결과: 종합평가

경제적 자유 지수는 5년 간격으로 측정되고 있는데, 평가대상이 된 국가 수는 1975년에는 109개국, 1980년에는 112개국, 1985년에는 112개국, 1990년에는 114개국, 그리고 1995년에는 115개국이다. 경제적 자유 지수의 측정 결과는 각국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수준인가, 그 수준의 변화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등을 바탕으로 그 나라의 시장경제의 활성화 정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세계 115개 국가를 대상으로 측정된 1995년의 경제적 자유 지수는 <부록>에 나타나 있다.

경제적 자유 지수의 종합평가에 따르면, 시장경제가 잘 정착되어 있는 홍콩이 평점 9.3으로서 1위이고,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 뉴질랜드, 미국 순이다. 등급이 높은 그룹에는 또 스위스,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이 속해 있는 반면, 태국(8위), 말레이시아(10위), 필리핀(10위), 대만(16위), 파라과이(16위) 등과 같은 국가들도 속해 있어 흥미롭지 않을

5) Gwartney, J., Lawson R., and Block, W.,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1975-1995*, Fraser Institute, 1995, pp. 37-41.

수 없다.

한국은 1975년에는 109개국 중 38위, 1980년에는 112개국 중 50위, 1985년에는 112개국 중 32위, 1990년에는 114개국 중 39위였는데, 1995년에는 18위로 경총 뛰어 올랐다.

그런데 폴란드, 중국, 불가리아, 루마니아, 러시아 등과 같은 구사회주의국가들은 거의 모두 평점이 낮고 등급이 높는데 그 이유는 이들 국가들에서는 시장경제가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3. 경제적 자유와 소득 및 성장 간의 관계

경제적 자유는 경제변수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를테면, 경제적 자유가 많은 나라는 경제성장이 얼마나 더 빠르고, 1인당 GDP가 얼마나 더 높은가? 경제적 자유와 소득 및 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1인당 GDP 수준과 그 증가율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

먼저 1995년 115개 국가의 경제적 자유 등급을 A, B, C, D, F, F-로 나눌 때 이들 국가군의 1인당 GDP(1985년 미달러)는 다음과 같다.

A: \$15,834    B: \$13,659

C: \$7,888    D: \$3,784

F: \$3,068    F-: \$1,650

이는 경제적 자유가 높은 나라일수록 1인당 GDP가 높다는 것을 잘 나타내준다.

다음에는 경제적 자유 지수가 지속적으로 높은 국가와 지속적으로 낮은 국가들의 1인당 GDP 수준과 그 증가율을 비교해 보자. 1975-95년 간 경제적 자유 등급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위 15위 안에 든 홍콩, 스위스,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독일의 1994년 평균 1인당 실질 GDP는 16,599달러이고, 연평균 증가율은 2.6%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경제적 자유 등급이 지속적으로 하위 15위 안에 든 소말리아, 헝가리, 브라질, 우간다, 짐바브웨 등의 평균 1인당 실질 GDP는 1,954달러이고, 연평균 증가율은 -1.1%이다. 이 비교에서도 경제적 자유가 높은 나라일수록 1인당 GDP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경제적 자유와 소득 및 성장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자유 지수와 1996년 1인당 GDP: 0.5664

경제적 자유 지수와 1인당 GDP 증가율: 0.4373

경제적 자유 지수와 실질 GDP 증가율: 0.4536



## 경제적 자유와 한국경제의 위상

이와 같은 상관계수의 추정결과로 보아, 경제적 자유 지수와 소득 및 성장 간에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자유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고 그 증가율도 높다고 말할 수 있다.

### IV. 경제적 자유와 한국경제의 위상

우리는 이제 한국의 경제적 자유는 몇 점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할 것이다.

#### 1. 한국의 경제적 자유 지수

한국의 경제적 자유는 몇 점이며 등급순위는 어떻게 변해 왔는가?

한국의 경제적 자유 평점은 1975년에는 10점 만점에 4.4점이었는데 1980년에는 4.0점으로 감소했다가 1985년에는 4.8점으로 증가한 후 1990년에는 5.0점, 그리고 1995년에는 6.7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 등급순위는 100여개 국가들 중 1975년에는 38위였는데 1980년에는 50위로 하락했다가 1985년에는 32위, 1990년에는 39위, 그리고 1995년에는 18위로 상승했다(〈표 1〉 참조).

한국의 경제적 자유의 평점과 등급순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71-75년, 1981-85년, 1986-90년 기간에는 평점이 4.4-5.0점으로 낮으며 순위도 32-39위로 낮은 편이다. 둘째, 1976-80년 간에는 경제적 자유가 크게 낮아져 평점이 4.0으로 감소하고 순위도 50위로 하락했다. 셋째, 1991-95년 기간에는 평점이 6.7점으로 크게 증가하고 순위도 일본과 같은 18위로 뛰어올랐다. 이에 관한 설명은 곧 이어질 것이다. 이제는 한국의 경제적 자유의 평점과 등급순위를 4개 부문과 17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4개 부문 중 경제적 자유 평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문은 통화와 인플레이션이다. 이 부문의 평점은 1975년에는 1.3점이었는데 1985년에는 2.9점으로 증가했다가 1990년에는 2.5점으로 감소한 후 1995년에는 8.5점으로 경총 뛰어올랐다. 이 부문의 변화에서 큰 영향을 미친 항목은 국내에서의 외화 소유와 외국에서의 은행계좌 소유인데, 이 두 항목의 평점은 1975-85까지는 0점이었으나 1995년에는 10점으로 경총 뛰어올랐다. 그 이유는 1992년부터 추진된 자본자유화에서 찾을 수 있다. 통화증가율과 인플레이션도 최근에 들어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함으로써 대체로 평점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

두 번째로 평점에 큰 영향을 미친 부문은 국제분야이다. 이 부문의 평점은 1975년에는

5.2점이었는데 1980년에는 4.2점으로 감소했다가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에는 7.4점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증가추세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환율안정과 그동안 한국이 추진해 온 자본자유화라고 말할 수 있다.

나머지 두 부문인 정부운용과 탈취는 약간의 개선만 나타났다. 정부운용 면에서 정부소비의 증가는 평점을 낮췄고 공기업 관련 내용은 모든 연도에서 6점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또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규제의 완화로 마이너스 이자율 관련 항목은 1985년 이후 10점을 기

<표 1> 한국의 경제적 자유 평가: 1975, 1980, 1985, 1990, 1995년

| 경제적 자유 항목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
| I. 통화와 물가상승           | 1.3     | 2.3     | 2.9     | 2.5     | 8.5     |
| (a)5년간 연평균 통화증가율      | 1(28.4) | 1(25.5) | 4(14.0) | 6(11.2) | 6(10.9) |
| (b)물가변동(최근 5년간)       | 3 (7.1) | 6 (3.3) | 5 (4.9) | 2(10.2) | 9 (2.0) |
| (c)외화소유               | 0       | 0       | 0       | 0       | 10      |
| (d)해외에서의 은행계좌 소유      | 0       | 0       | 0       | 0       | 10      |
| II. 정부운용              | 5.9     | 6.0     | 7.2     | 5.9     | 6.3     |
| (a)정부소비(총소비 중 비율)     | 8(13.5) | 7(15.2) | 7(14.5) | 7(15.9) | 6(16.4) |
| (b)정부기업               | 6       | 6       | 6       | 6       | 6       |
| (c)가격규제               | -       | -       | -       | 3       | 3       |
| (d)기업설립규제             | -       | -       | -       | -       | 7.5     |
| (e)법제도                | -       | -       | -       | -       | 7.5     |
| (f)부의 이자율 회피          | 2       | 4       | 10      | 10      | 10      |
| III. 탈취               | 4.5     | 3.6     | 4.1     | 4.6     | 5.5     |
| (a)이전과 보조(GDP 중 비율)   | 9(2.0)  | 9(2.0)  | 8(2.2)  | 8 (2.9) | 8 (2.9) |
| (b)한계세율(최고세율)         | 2(63)   | 0(89)   | 2(65)   | 3(60)   | 5 (48)  |
| (c)징집제도               | 0       | 0       | 0       | 0       | 0       |
| IV. 국제분야              | 5.2     | 4.2     | 5.0     | 6.4     | 7.4     |
| (a)국제무역에 대한 조세(평균)    | 7 (3.1) | 6(4.1)  | 7(3.6)  | 7(3.4)  | 8 (2.9) |
| (b)암시장환률(프리미엄)        | 7 (2)   | 4(11)   | 4(11)   | 8 (1)   | 10 (0)  |
| (c)무역분야의 크기(GDP 비중)   | 7(32.2) | 8(37.7) | 8(33.9) | 5(30.0) | 6(33.7) |
| (d)외국인과의 자본거래         | 0       | 0       | 2       | 5       | 5       |
| 한국의 경제적 자유 평점(10점 만점) | 4.4     | 4.0     | 4.8     | 5.0     | 6.7     |
| 한국의 국가순위/조사대상 국가 수    | 38/109  | 50/112  | 32/112  | 39/114  | 18/115  |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실질치이고, -는 지수 측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연도임.

자료: J. Gwartney and R. Lawson,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1997, Annual Report*, Fraser Institute, 1997. p. 170.

## 경제적 자유와 한국경제의 위상

록했다. 한편 탈취부문에서는 이전과 보조비율이 높아 평점이 낮지만 최근에는 다소 증가했다. 한계세율은 지니치게 높아 낮은 평점을 가져왔으나 최근에는 크게 증가했다.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징집제도가 존속하게 될 것이므로 징집제도 항목은 당분간 0점을 기록할 것이다.

한국이 앞으로 경제적 자유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무역자유화와 자본자유화 등이 평점을 증가시킨 반면 높은 통화증가율, 높은 세율, 가격규제와 기업설립규제 등이 낮은 평점을 가져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방화정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하리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 2. 한국과 선진국과의 비교

다음에는 한국의 경제적 자유를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보기로 하자.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이 경제적 자유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표 2〉 참조).

〈표 2〉 20년 간 경제적 자유 지수가 지속적으로 15위 안에 든 국가들, 1975-95

| 국가                 | 경제적 자유 지수 |      |      |      |      |
|--------------------|-----------|------|------|------|------|
|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 <b>지속적으로 높은 국가</b> |           |      |      |      |      |
| 홍콩                 | 9.2       | 9.4  | 9.5  | 9.1  | 9.1  |
| 스위스                | 7.1       | 7.1  | 7.3  | 7.3  | 7.5  |
| 싱가포르               | 6.8       | 7.1  | 8.0  | 8.5  | 8.2  |
| 미국                 | 6.0       | 6.2  | 6.5  | 7.4  | 7.7  |
| 캐나다                | 6.1       | 6.8  | 5.9  | 6.9  | 6.9  |
| 독일                 | 5.9       | 6.0  | 6.0  | 6.3  | 6.4  |
| 한국                 | 4.4       | 4.0  | 4.8  | 5.0  | 6.7  |

자료: Gwartney, J., Lawson R., and Block, W.,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1975-1995*, Fraser Institute, 1995, p. 67.

〈표 2〉를 바탕으로 경제적 자유 지수가 지속적으로 높은 나라와 지속적으로 낮은 나라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경제적 자유가 지속적으로 높은 나라의 특징은 첫째,

거의 모든 나라에서 경제적 자유 평점이 증가하고 있고 둘째, 평점이 5.9점 이상으로 높으며 셋째,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거의 모든 항목에서 경제적 자유가 높다는 점이다. 반면 경제적 자유 지수가 지속적으로 낮은 나라의 특징은 첫째, 모든 나라에서 평점이 3.7점 이하이고 둘째,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적 자유는 20여년에 걸쳐 향상되기보다는 오히려 위축되어 왔으며 셋째, 역시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거의 모든 항목에서 경제적 자유 평점이 낮다는 점이다.

그런데 경제적 자유가 지속적으로 낮은 국가들로부터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특별한 것이 없으리라고 판단되어 이들 국가들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표 2>에 포함되어 있는, 경제적 자유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들 국가들에서 경제적 자유를 증가시킨 요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홍콩: 홍콩은 1975-95년 간 평점이 계속 9.1점 이상이고 등급순위도 1위이다. 홍콩은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결과 종합평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홍콩이 평점이 가장 높고 등급순위가 1위인 것은 홍콩이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장경제체제였기 때문임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홍콩이 1997년 중국에 귀속된 후에도 계속 등급순위 1위를 유지할 것인가는 두고볼 일이다.

②스위스: 스위스는 평점이 7.1점 이상으로 높고,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스위스의 평점이 높은 이유는 통화와 물가부문의 안정과 국제부문의 높은 개방과 큰 규모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평점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온 대표적인 요인은 자본시장의 개방화이다.

그러나 스위스는 정부운용과 정부지출 및 이전 항목에서는 모든 연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③싱가포르: 싱가포르는 평점이 6.8점 이상으로 높고, 이는 1995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싱가포르에서 평점이 높은 부문은 국제분야인데, 특히 자본시장의 높은 개방화로 관련된 항목에서 거의 만점을 받고 있다. 통화와 물가는 최근에 들어와 안정세를 보여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 정부운용은 다른 부문에 비해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④미국: 미국은 평점이 6.0점 이상으로 높고, 평점의 증가가 대표적으로 빠른 국가이다. 미국은 1985년까지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그 후로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통화와 물가부문의 안정으로 만점을 받는데다가 규제가 낮은 정부운용과 자본시장의 높은 개방화로 만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은 세계에서 시장경제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은 정부소비 비율이 높고, 이전 및 보조 비율이 높으며, 기대치에 대한 실제치 무역규모가 작아서 이 항목에서는 한국보다도 더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 경제적 자유와 한국경제의 위상

⑤캐나다: 캐나다는 평점이 5.9점 이상으로 높고, 이는 1985년을 제외하고 증가해 오고 있다. 캐나다도 미국처럼 통화 및 물가부문과 자본시장 관련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캐나다 역시 미국처럼 시장경제가 비교적 잘 발달된 국가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캐나다도 정부운용과 이전 및 보조, 한계세율 면에서는 한국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⑥독일: 독일은 평점이 5.9점이상으로 높고, 이는 한 해도 예외없이 증가해 오고 있다. 독일도 통화 및 물가 부문과 자본시장 관련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독일도 정부운용과 이전 및 보조, 한계세율 면에서 한국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 20여년 간 경제적 자유의 평점과 등급순위가 지속적으로 높은 6개 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자유가 높았던 이유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경제적 자유를 높이기 위해서 이들 국가들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물가와 통화를 안정시키고, 규제를 완화하며, 특히 자본시장의 개방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 V. 결 론

이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 IMF 체제하의 한국의 경제적 자유에 관한 평가를 전망하고자 한다.

### 1. 요약

이 글은 시장경제의 핵심이 되는 경제적 자유와 관련하여 한국경제의 위상을 평가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이 글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이 글에서는 경제적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논의했다. 밀튼 프리드먼에 따르면, 경제적 자유의 본질은 소득사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소유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자유 세가지로 구성된다고 한다.

둘째, 경제적 자유는 1984년부터 1977년까지 15여년 간의 전문가 중심의 연구가 바탕이 되었다. 최초의 결실은 J. Gwartney, R. Lawson, W. Block의 공동집필로 1996년 1월에 출간된 『세계의 경제적 자유 1975-1995』(*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1975-1995*)라는 책이고, 두 번째의 결실은 J. Gwartney와 R. Lawson가 수많은 연구

소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자료의 보완작업을 거친 후 1997년에 출간한 287쪽에 이르는 「세계의 경제적 자유, 1997년 연차보고서」(*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1997 Annual Report*)라는 이름의 책이다. 이 연차보고서는 앞으로 새로운 자료를 보완하여 해마다 계속해서 출간될 예정이다.

셋째, 경제적 자유와 관련하여 한국경제의 위상은 높게 나타나 있다. 한국의 경제적 자유 평점은 1975년에는 10점 만점에 4.4점이었는데 1980년에는 4.0점으로 감소했다가 1985년에는 4.8점으로 증가한 후 1990년에는 5.0점, 그리고 1995년에는 6.7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 등급순위는 100여개 국가들 중 1975년에는 38위였는데 1980년에는 50위로 하락했다가 1985년에는 32위, 1990년에는 39위, 그리고 1995년에는 18위로 상승했다.

넷째, 지난 20여년 간 경제적 자유의 평점과 등급순위가 지속적으로 높은 6개 국가들로부터 얻은 교훈을 감안할 때, 한국이 앞으로 경제적 자유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들처럼 물가와 통화를 안정시키고, 규제를 완화하며, 특히 자본시장의 개방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 2. 시사점: IMF 체제하의 한국의 경제적 자유 평가

이제는 IMF 체제하에서 한국의 경제적 자유의 평점은 얼마나 될 것인가를 논의하기로 하자. IMF 체제가 2002년까지 계속되지만 프레이저 연구소가 사용해 오고 있는 기간에 맞추기 위해 1996-2000년까지로 기간을 정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IMF의 요구내용<sup>6)</sup>과 이를 중심으로 한국이 실시해야 할 IMF 체제하의 거시경제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밝혀둔다.<sup>7)</sup>

### I. 통화와 인플레이션

IMF 체제에서는 긴축통화정책이 실시될 것이므로 통화증가를 마이너스 실질 GDP 증가는 과거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최저점수는 1995년과 같은 6점으로 보기로 한다. 인플레이션은 1998년을 제외하고 2002년에 이르기까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1995년과 같은 9점을 주어도 무방할 것 같다. 외화소유와 해외에서의 은행계좌 소유는 앞으로 자본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될 것이므로 10점을 줄 수 있다. 통화와 인플레이션의 평점은 1.329점이 될 것이다.

6) IMF, 'Korea-Memorandum on the Economic Program, <<조선일보>>, 1997. 12. 6, 12면; 「한국경제 극복보고서」, <<조선일보>>, 1997. 12. 8, 12면.

7) 박동운, 「IMF 체제하의 한국의 거시경제정책」, 『논문집 32집』, 단국대학교, 1998. 8. 31.

## II. 정부운용

IMF 체제하에서 정부가 긴축재정정책을 펴야한다 할지라도 정부소비는 경직적이어서 GDP에 대한 정부소비 비율의 감소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1995년과 같은 6점을 주기로 한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후반기에 들어가 공기업을 과감하게 매각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어서 이 항목의 평점은 8점이 되리라고 기대된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직후 새 정부의 과제는 물가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가격규제도 필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항목은 1995년과 같이 3점을 주어야 할 것 같다. 김대중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투자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갖 규제를 철폐할 계획임을 밝혀오고 있어서 이 항목은 1995년의 7.5점에서 10점으로 증가하리라고 기대된다. 차별과 관련된 법과 제도는 1995년과 같은 7.5점이 기대된다.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 항목은 1995년과 같이 10점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운용의 평점은 2.468점이 될 것이다.

## III. 탈취와 한계세율

WTO 체제에서 정부의 이전과 보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IMF 통치하에서 실업증가에 대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전과 보조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항목에다는 1995년과 같은 8점을 주기로 한다. 현시점에서 세계개편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진 것이 별로 없으므로 이 항목에다는 1995년과 같은 5점을 주기로 한다. 징집제도는 당분간 없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이 항목은 0점이 될 것이다. 탈취와 한계세율에서는 평점이 1.057점이 될 것이다.

## IV. 국제교환의 규제

무역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국제무역에 대한 조세는 감소될 것이므로 이 항목은 1995년보다 다소 높은 9점을 주기로 한다. IMF 체제에서는 현재와 같이 변동환율제가 지속될 것이므로 암시장에서 프레임은 붙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10점을 주기로 한다. 무역규모의 기대치에 대한 실제치의 크기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1995년과 같은 6점을 주기로 한다. 앞으로 자본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므로 이 항목은 10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국제분야의 평점은 2.035점이 될 것이다.

이제 각 분야의 점수를 합하면, IMF 체제하에서 한국의 경제적 자유 평점은 7.3점이 될 것 같다. 이는 1995년보다도 0.6점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요인은 여러 가지 규제완화 및 철폐, 무역자유화, 자본자유화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IMF 체제는 경제적 자유 면에서 한국경제를 돕게 되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IMF 체제에서 한국의 시장경제는 더욱 활성화되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우택 외, 『시장경제와 한국의 자본주의』, 소화, 1995.
- 공병호,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자유기업센터, 1997.
- 박동운, 『IMF 체제하의 한국의 거시경제정책』, 『논문집 32집』, 단국대학교, 1998. 8. 31.
- 한국경제학회·자유기업센터·매일경제신문사, 『경제위기의 원인과 전망』 정책심포지움, 1998. 3. 25.
- Eatwell, J., Milgate, M. & Newman, P., *The Invisible Hand*, W. W. Norton, 1989.
- Gates, Bill, *A Road to Future*
- Gwartney, J., Lawson R., and Block, W.,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1975-1995*, Fraser Institute, 1995.
- Gwartney, J. and Lawson, R.,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1997, Annual Report*, Fraser Institute, 1997.
- Friedman, M.,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Univ. Press, 1962.
- \_\_\_\_\_ and Friedman, R., *Free to Choose*, Harcourt Brace Janovich, 1980.
- \_\_\_\_\_, *Tyranny of the Status Quo*, 1984, 김학은 역, 『自由經濟의 危機』, 每日經濟新聞社, 1986.
- Hayek, F., *Road to Serfdom*, Chicago Univ. Press, 1944.
- \_\_\_\_\_,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Routledge & Kegan Paul, 1967.
- \_\_\_\_\_, *Economic Freedom*, IEA, 1991.
- IMF, 'Korea-Memorandum on the Economic Program, <<조선일보>>, 1997. 12. 6, 12면
- IMF, 「한국경제 극비보고서」, <<조선일보>>, 1997. 12. 8, 12면.
- Walker, M. A.,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Economic Freedom Index," in J. Gwartney and R. Lawson,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1997, Annual Report*, Fraser Institute, 1997, pp. 1-10.



경제적 자유와 한국경제의 위상

〈부록〉 경제적 자유 지수의 종합평가: 1995

| 등급 | 국가    | 평점  | 등급 | 국가     | 평점  | 등급  | 국가     | 평점  |
|----|-------|-----|----|--------|-----|-----|--------|-----|
| 1  | 홍콩    | 9.3 | 36 | 노르웨이   | 6.1 | 78  | 가나     | 4.4 |
| 2  | 싱가포르  | 8.2 | 36 | 오스트리아  | 6.0 | 78  | 인디아    | 4.4 |
| 3  | 뉴질랜드  | 8.0 | 42 | 포르투갈   | 5.9 | 81  | 우간다    | 4.3 |
| 4  | 미국    | 7.9 | 42 | 자마이카   | 5.9 | 81  | 폴란드    | 4.3 |
| 5  | 모리셔스  | 7.6 | 42 | 덴마크    | 5.9 | 81  | 중국     | 4.3 |
| 6  | 스위스   | 7.4 | 42 | 온두라스   | 5.9 | 84  | 방글라데시  | 4.2 |
| 7  | 영국    | 7.3 | 42 | 스페인    | 5.9 | 84  | 말리     | 4.2 |
| 8  | 태국    | 7.2 | 42 | 스웨덴    | 5.9 | 84  | 시에라레온  | 4.2 |
| 9  | 코스타리카 | 7.1 | 48 | 보스니아   | 5.8 | 87  | 베넌     | 4.1 |
| 10 | 말레이시아 | 7.0 | 48 | 몰타     | 5.8 | 87  | 불가리아   | 4.1 |
| 10 | 필리핀   | 7.0 | 50 | 남아프리카  | 5.7 | 87  | 잠비아    | 4.1 |
| 10 | 호주    | 7.0 | 50 | 바르바도스  | 5.7 | 87  | 토고     | 4.1 |
| 10 | 파나마   | 7.0 | 52 | 스리랑카   | 5.6 | 91  | 이집트    | 4.0 |
| 14 | 캐나다   | 6.9 | 52 | 도미니카공  | 5.6 | 92  | 카메룬    | 3.9 |
| 14 | 엘살바도르 | 6.9 | 52 | 에스토니아  | 5.6 | 92  | 베네주엘라  | 3.9 |
| 16 | 대만    | 6.8 | 55 | 콜롬비아   | 5.5 | 94  | 르완다    | 3.8 |
| 16 | 파라과이  | 6.8 | 55 | 리투아니아  | 5.5 | 94  | 네팔     | 3.8 |
| 18 | 한국    | 6.7 | 55 | 이태리    | 5.5 | 94  | 슬로베니아  | 3.8 |
| 18 | 일본    | 6.7 | 55 | 에콰도르   | 5.5 | 94  | 세네갈    | 3.8 |
| 18 | 바레인   | 6.7 | 55 | 트리니다드  | 5.5 | 98  | 나이지    | 3.7 |
| 21 | 네델란드  | 6.5 | 59 | 요르단    | 5.4 | 98  | 브라질    | 3.7 |
| 21 | 파테말라  | 6.5 | 61 | 케냐     | 5.3 | 98  | 콩고공화국  | 3.7 |
| 21 | 아일랜드  | 6.5 | 62 | 체코     | 5.2 | 101 | 짐바브웨   | 3.6 |
| 21 | 아이슬랜드 | 6.5 | 63 | 헝가리    | 5.1 | 101 | 코테트부와르 | 3.6 |
| 25 | 볼리비아  | 6.4 | 64 | 사이프러스  | 5.0 | 101 | 중앙아프리카 | 3.6 |
| 25 | 아르헨티나 | 6.4 | 64 | 그리스    | 5.0 | 101 | 루마니아   | 3.6 |
| 25 | 칠레    | 6.4 | 66 | 슬로바키아  | 4.9 | 105 | 러시아    | 3.5 |
| 25 | 독일    | 6.4 | 67 | 차드     | 4.7 | 106 | 알바니아   | 3.4 |
| 29 | 오만    | 6.3 | 67 | 튀니시아   | 4.7 | 106 | 우크라이나  | 3.4 |
| 29 | 벨리즈   | 6.3 | 67 | 라트비아   | 4.7 | 108 | 자이레    | 3.3 |
| 29 | 우루과이  | 6.3 | 70 | 탄자니아   | 4.6 | 109 | 나이지리아  | 3.0 |
| 29 | 인도네시아 | 6.3 | 70 | 이스라엘   | 4.6 | 110 | 이란     | 2.9 |
| 29 | 페루    | 6.3 | 70 | 모로코    | 4.6 | 110 | 아이티    | 2.9 |
| 29 | 벨지움   | 6.3 | 70 | 파키스탄   | 4.6 | 112 | 부룬디    | 2.7 |
| 35 | 바하마스  | 6.2 | 70 | 니카라과   | 4.6 | 112 | 시리아    | 2.7 |
| 35 | 멕시코   | 6.1 | 75 | 가봉     | 4.5 | 114 | 크로아티아  | 2.4 |
| 36 | 핀란드   | 6.1 | 75 | 말라위    | 4.5 | 115 | 알제리아   | 1.9 |
| 36 | 프랑스   | 6.1 | 75 | 터키     | 4.5 |     |        |     |
| 36 | 피지    | 6.1 | 78 | 마다가스카르 | 4.4 |     |        |     |

자료: James Gwartney, Robert Lawson,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1997, Annual Report*, Fraser Institute, 1997, p. 27, Exhibit 2-2.

## ABSTRACT

### Economic Freedom and the Phase of Korean Economy

Park, Dong U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valuate the phase of Korean economy in relation to economic freedom. The main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

First, this paper summarizes the essences of economic freedom that have been developed by economists. Among them Milton Friedman's thoughts are more precise. According to M. Friedman, the essences of economic freedom are freedom to choose how to use our income, freedom to use the resources we possess, and freedom to own property.

Second, this paper summarizes the method to evaluate economic freedom and the results of evaluation made by Frazer Institute and many other Institutes in the world. In 1995, the high-rated countries in terms of economic freedom are Hong Kong, Singapore, New Zealand, U.S.A., Switzerland, U.K.... The ranking of Korea is 18th among 115 countries in 1995.

Third, the ratings of Korea are 4.4 in 1975, 4.0 in 1980, 4.8 in 1985, 5.0 in 1990, and 6.7 points in 1995. The important factors that improved economic freedom in Korea are found to be lowering of regulations, import liberalization,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etc.. This findings suggest that Korea persistently lower the regulations and liberalize the capital market to foreigners.

Fourth, it is expected that economic freedom in Korea will be improved under the control of the IMF System. This means that under the control of the IMF System, copetition in Korea will be more vitalized.